부활의 소망

성경말씀: 고후6:1

배경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모임이다.
오늘은 집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신구약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과 만나 그분께 경배하며 그분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분과 만나 그분께 경배할 장소가 필요하다(사적, 공적 장소).
가인과 아벨의 때부터 하나님과 만나는 일이 시작되었고 만남의 장소가 필요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제단: 창8:20(노아), 창12:7(아브라함), 창26:25(이삭), 창33:20(야곱)
모세 이후에 이집트 탈출 뒤 광야에서 성막(유목민들의 텐트 개념)을 세우고 하나님께 경배했다.
이후로 성막과 성전에서 예배가 진행되었다.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궤이다.
다윗이 자기가 마련한 처소로 궤를 옮기면서 너무 기뻐서 춤을 추다가 아내에게 조롱을 받음(삼하6).
다윗이 자기가 지은 집을 보면서 하나님의 집이 없음을 보고 슬퍼함(삼하7).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건립하기 위해 충분한 재물을 마련하고 죽음(대상22-26장).
솔로몬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지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 건물만 중시하고 그 안에 거하는 하나님을 무시하자 성전이 훼파됨.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빌론 포로 생활 이후에도 성전을 지음.
신약시대로 와서 하나님의 영이 성도들 안에 거하기 시작함.
성도들의 예배 장소가 필요했고 처음에는 집 교회로 집에서 모이기 시작함.
시대가 바뀌면서 모임을 위한 공적 장소 즉 예배당이 필요하게 되었다. 전 세계 도처에
1년 전에 오늘 우리는 조그만 발걸음을 떼었다. 또 오늘 다른 발걸음을 떼었다.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새 예배당으로 옮겨왔다.
여기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일에는 수고와 희생이 따른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다.
우리의 희생과 수고와 눈물을 하나님께서 갚아 주신다(Lim 자매 헌금 소개).
바른 정신을 유지하자: 하나님은 영이시므로 그분께 경배하는 자가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해야 한다.
좋은 예배당 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리스도의 일로 인한 희생과 어려움

사도 바울은 곳곳으로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교회를 세웠다.
<u>고후4장 1절</u>: 그런데 이런 선한 일을 하는 그에게 낙심하는 일이 많이 생겼다. 목회의 아이러니
<u>4장 8-9절</u>: 억울한 일, 힘든 일, 고린도 교회의 문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고 교회 일을 할 때에 늘 기쁘고 긍정적인 일만 생기지 않는다.
이것이 믿음의 패러독스다. 교회를 옮기는 일, 사역자와 집사를 세우는 일 등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도 비난과 비방이 있다(내부에서, 외부에서). 주님의 일을 하면 어쩔 수 없이 이런 문제가 생긴다.
<u>4장 10-11절</u>: 그리스도의 사역자는 예수님 때문에 죽음을 감수하고 일을 한다.
성장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일이 반드시 생긴다. 일을 하면 비장이 생긴다.
<u>4장 14절</u>: 그럼에도 믿음의 사역자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
부활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다.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다(고전15:19).
왜 부활하는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에 그분을 따르는 우리도 부활한다.
그리스도의 부활 이전에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이 있었다. 우리에게도 영광 이전에 고난과 핍박이 있다. 부활의 소망이 있는가? ★★★

4장 16절: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
4장 17절: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룬다.
4장 18절: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본다. 이것이 믿음이다. 감정이 아니라 믿음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기에 그대로 믿는다. ★★★

부활로 인해 새로운 집이 생긴다.

5장 1절은 for로 시작된다.
집, 아담과 이브의 창조 이후에 그들이 거할 장소가 필요했다. 집이 필요했다.
당신은 집이 있는가? ★★★
집: house 2026회, 창7:1(노아의 집), 창12:1(아브라함의 아버지 집)
누구나 집을 갖고 싶어 한다. 유학시절부터 지금까지 20여 차례 이사다님.
그런데 집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든 사람이 다 땅에 장막 집을 가지고 있다.
우리에게 집이 있다. 사람은 영혼육의 존재, 이 중에서 우리는 혼을 가리키고 장막 집은 혼이 거하는 집을 가리킨다.
장막: tabernacle 328회, 출25:9, 텐트, 유목민들의 거주 장소, 사도 바울은 장막을 만드는 사람

장막 집:
1. 잠시 머물다가 다른 데로 옮기는 임시 처소(흙에서 와서 흙으로 간다, 잠시 머무는 곳이다, 우리는 순례자요 나그네이다(히11;13). 믿음의 선진들의 행로,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어리석다.
몸을 혼보다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이다.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마16:26)?
집의 거주자(혼)에 신경을 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말씀과 기도와 교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몸을 써서는 안 된다. 특히 성도들의 경우 하나님의 영이 동시에 몸 안에 거한다. 집의 문을 잘 잠가야 한다(눈, 귀, 마음).
2. 썩는다. 사망이 임하면 이 집은 썩어 없어진다. 사망의 위력 앞에는 아무도 힘을 쓰지 못한다. 사망은 순식간에 임한다. 사망은 죄 때문에 생겼다. 하나님께 대한 반역,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사망 극복
3. 연약하다. 원래 사람의 몸은 두렵고도 놀랍게 만들어졌다(시139:14). 머리, 눈과 귀, 입, 손, 발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체
그런데 연약해서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유행, 죄, 내부 환경; 각종 질병 병).
4. 불편하다: 보존하려면 힘이 든다(매일 가꾸어야 한다). 장막에서 편안함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여름 캠프)

하나님의 건물
혼이 최종적으로 영원히 거하는 곳(잠시 머무는 곳이 아니다).
1. 초자연적이다(하나님의 도시에 있다). 2. 영원하다. 3.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4. 영화롭다. 5. 편안한 집이다.
휴거와 부활에 의해 이 집을 얻는다. 예수님의 부활 때의 그 영화로운 몸을 얻는다.

결론

1. 주님의 일을 하면서 비방과 고난과 희생을 당하는 일을 당연하다. 특히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바르게 하려면 많은 어려움이 있다.
2. 이때마다 부활의 소망으로 위로 받아야 한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다(요 11:25-26).
3. 장막 집을 떠나 하나님의 건물로 들어간다.
4. 당신은 장막 집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